

책자형 선거공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선거구

힘있는 3선

왔다, 조일현!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우리 지역은
조일현이 있어
희망이 있다.

농촌을 살릴 사람! 지역을 빛낼 일꾼!

무소속

만64세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8

조일현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난관을 함께 이겨 냅시다!

갑자기 바뀐 선거구, 이해할 수 없는 후보공천, 강원도가 무시당했습니다.

인사를 드릴 시간도, 의논할 기회도 없는 관계로 길게 글로 적었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천자 무소속 조일현 권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8	무소속	조일현	남	1955.07.15 (만64세)	정치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북경대학교 대학원 졸업 (정치학이론전공, 법학박사)2001.9~2003.12	(전)제14·17대 국회의원 (전)제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937,057	873,870	63,187	0	0	육군 병장 (만기)	장남 : 해병대 병장 (만기)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293	0	0	해당없음
후 보 자	2,196	0	0	
배 우 자	0	0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97	0	0	

4. 소명서

없음

조일현은 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정치판을 갈아 엮고 무너진 강원도의 자존심을 찾고 지키는 동시에 도민들과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기를 위하여 홍천·횡성·영월·평창군민의 공천을 받고 사즉생의 각오로 도전합니다.

조일현은 그동안 당에 충성했고, 빛나는 공을 세웠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맡고 있던 지역구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을 모두 승리했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한명도 없었던 5개군에 군수 3명, 군의장 4명, 도의장까지 저의 지역구에서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의 질서와 농간으로

선거구역이 확정된지 하루만에 조일현에게는 출마 여부를 묻는 단 한마디 확인도 없이, 말도 안되는 전략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중앙 정치판은 맘대로 강원도 선거구를 난도질 하였고 또 당은공천자를 원칙과 기준없이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강원도민을 더욱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조일현”은 결심했습니다.

“이 몸하나 불살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잘못된 세력들을 반드시 몰아낼 것입니다! 강원도와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뭋을 찾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조일현”이 선봉에 서서 싸우고 바꾸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본때를 보여주자!
강원도의 뭋을 찾자!

8 **조일현**

양촌을 살릴 사람! 지역을 빛낼 일꾼!



▲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알고 계십니까?
조일현이 무소속이
된 사연을...
잇으시면 안됩니다.
조일현과의
약속과 다짐을...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조일현은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는가?

화전민의 아들, 농사꾼의 자식 조일현은 초등학교 4학년때 국회의원의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갖게 된 동기는?

집과 학교 사이에 큰 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긴 강에 다리다운 다리가 하나도 없어서, 비가 와서 물이 늘면 학교를 못가도 걸석이 아니고 늦게 가도 지각이 아니며, 일찍 돌아와도 조퇴가 아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을때, 학교 앞에 다리가 하나 놓아졌고 그 다리를 당시 “국회의원이 놓아주셨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아, “나도 이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꿈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실력과 능력을 키우고 자신을 관리해 왔습니다.

조일현은 올해 64세로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전과 하나없는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자신있습니다!

왔다, 조일현!

조일현은 어떤 정치인인가?

“조일현”은 검증되고 준비된 국회의원입니다.

- 29세때 제12대 총선에 출마했고, 36세때 제14대 총선 전국 최연소 당선자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국회지원단 대표를 했고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여 스위스 제네바 가트 본부 앞에서 삭발시위를 하는 등 농촌과 농민을 위해 싸우고 일했습니다.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감사 등을 하면서 법과 정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 쌀협상 관련 국회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했으며 당의 주요 직책과 국회직을 역임한 능력 있는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정치인입니다.
- 조일현은 적어도 3선은 되어야 하는 국회상임위원장을 재선때 하였습니다. 그것도 요직인 국회건설교통위원장직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만큼 출중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정치인입니다. 힘있는 3선 국회의원으로 키워주십시오.

농촌을 살리고 지역을 빛내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감사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출신
조일현은
농촌지역에 어울리는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조일현은 어떤 제도를 고치고 일을 하였는가?

“조일현”은

- 별정직 5급이 하던 읍·면·동장을 일반직 현직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부정선거를 막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승진 기회와 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제22대 대한 핸드볼협회 회장으로 재직시 중동 심판의 농간으로 남·여 국가대표팀이 예선 탈락 했을때, 국제적인 항의와 영리한 외교적 노력으로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재경기를 통해서 북경 올림픽에 참가했고, 그 결과 여자 동메달, 남자 8강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일현은 “할말 하고 할일하는 강단있는 정치인”으로 정의롭고 불의에 맞서 싸울 줄 아는 당찬 일꾼입니다.



▼ 북경올림픽 예선재경기를 승리하고서
(일본동경 요요기 체육관)

조일현은 할 수 있습니다.
힘있는 3선의원이 되어
선거구역은 반드시 1년전에
획정하고 국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상식과 현실에
맞는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게
꼭 실천하겠습니다.
강원도 9석을 반드시 쟁기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도자료_2006.12.8

의원입법 발의 · 가결률 1위 조일현 의원

입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우수의원 14인 선정

순위	의원명	당적	선수	발의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1	조일현	열린우리당	재선	6	3	50.0
2	노현송	열린우리당	초선	4	2	50.0
3	이목희	열린우리당	초선	7	3	42.0
4	김태흠	열린우리당	재선	6	2	33.3

문대협(문) _2004.10.25

국정감사 상임위원 베스트의원

수정위원		수제위원	
성명	소속정당	성명	소속정당
조일현	열린우리당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김기갑	자유민주연합

◆ 농해수위
조일현 우
강기갑 노
김기갑 노

조일현은 무슨 법과 정책을 만들었는가?

“조일현”이 만든 법

- 농지를 쉽게 축사로 전용하게 하여 축산 농가를 도왔습니다.
- 육류 원산지 표시법을 만들어서 축산 농가의 수익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었습니다.
- 한국 농업대학(현 한국농수산대학)을 만들어서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국유림 임대 사업법을 만들어 주민들의 소득을 높였습니다.
-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 향교가 종합 부동산세로 큰 돈을 내던 것을 “향교도 종교”라는 논리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농민과 일반 주민에게 필요한 법을 많이 만든 “농업·농촌 정책 전문가” 정치인입니다.

더 좋고 필요한 법과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8 조일현

농촌을 살릴 사람! 지역을 빛낼 일꾼!



조일현은
'정치는 창조와 치유' 라고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한발 앞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교통위 국정 감사실에서

조일현이 이루고 싶은 정치와 꿈은?

- 서울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물값을, 중앙정부로부터는 산소값을 듬뿍 받아 오겠습니다.
- 축사로부터 나오는 냄새를 말끔하게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분권 강화로 강원도의 몫을 당차게 확보하겠습니다.
-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되어 선진강국을 이끄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 “부활농업 재생농촌” 정책을 통해 돈이 되는 농업, 현재 20%를 밑도는 국가 식량 자급율을 60%이상으로 끌어 올려서 선진강국의 식량 자급도를 확보하고, 식품 수출 산업을 활성화 하여 농촌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높여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 전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 집권적 형태와 현실을 지방 분권 강화로 강원도의 몫을 찾아 오겠습니다.
-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알뜰히 살피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4m 도로가 연결 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현 상황을 자동차만 다닐 수 있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는 한시법 등을 만들어 실질적 도움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힘있는 3선 의원으로 우뚝 세워 주십시오.

함께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조일현은 과연 그만한 배짱과 지혜가 있는가?

홍천 - 기차타고 서울가자

- 홍천~용문간 철도 12년전에 5,071억원을 들여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웬일인지 안되었습니다.
- 홍천~춘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2차선입니다. 이 같은 사업은 조일현이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시절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 식수댐을 막아 음용수를 확보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경제영토를 넓히겠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자신 있습니다.

횡성 - 용두리~공근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 양평 용두리에서 횡성 공근까지의 4차선 확포장 공사, 깃발 꽂고 보상절차를 진행하다 취소되었고, 안흥 전재 터널 4차선이 2차선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식품수출산업을 위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반드시 해제하겠습니다.

평창의 올림픽 문화유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 평창의 올림픽 문화유산을 좋은 환경과 조화롭게 연계하여 돈이 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방특화특별법으로 영월의 새단장

- 폐특법 시한 연장, 삼척~영월간 고속도로 연장,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출신 조일현은 해낼수 있습니다.
- 영월읍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동강교 부근을 38번 국도로 편입 승격시켜 교통의 숨통을 트겠습니다.
- 신림~영월, 제천~평창 국도 4차선 확포장을 하겠습니다.

선거구를 지역 정서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홍천·횡성·영월·평창의 본 모습과 권리를 보장하고 영월은 소위 폐특법 대상지역으로 귀속시키겠습니다.



“조일현”은 그만한 배짱과 지혜가 있습니다. 뽑아만 주십시오!

식발시위 현장에서 ▶

社 說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의 정직과 용기

曹鎰鉉(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의 23일 쌀 關稅化(관세화) 유예협상 批准案(비준안) 찬성 연설 내용을 듣고 많은 국민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국민들은 조 의원의 정직함이 더없이 미더웠고 국회의원들로서 그가 내보인 勇氣(용기)가 자신들엔 없었다는 사실이 낯이 뜨거웠을 터이다. 조 의원은 비준안에 대한 유일한 토론자였다. 토론을 신청했던 여러 의원들이 막상 토론의 시간이 닥치자 몸을 사리고 토론을 사양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地域區民(지역구민) 가운데 70% 이상이 농민이고, 그들이 다음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를 던져주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치생명이 끊길 수도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낙선자 시절 직접 농사를 지었고, 1996년 初選(초선) 의원 시절엔 우루과이 협상이 벌어지면 제네바에서 삭발로 쌀 개방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연어낸 게 10년간의 쌀 개방 유예기간이었다.

그 투쟁의 선봉에 섰던 조 의원은 "WTO 협상에서 10년 유예기간을 벌고도 정치권이 표 되는 쪽으로 가다니 42조원을 붓고도 농업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담해야 한다"며 더 이상 세월을 虛送(허송)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그렇게 했

뒤에 흘러보낸 세월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사실은 단상을 접거하고 있던 민노당 의원들도 否認(부인) 하진 못할 것이다.

이 나라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국회가 쌀 비준안을 거부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번 협상안은 그걸 10년 더 늦춰 농민과 농업이 살 길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다. 쌀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처럼 自主(자주)를 외치며 굶어죽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는 것도 다 안다. 그러나 알아서 무엇하겠는가. 알고 또 실천하는 知行(지행)合一(일합)의 의원은 조 의원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조 의원은 여섯 번 출마해 네 번 떨어졌던 사람이다. 落選(낙선)의 고통이 얼마나 쓰라린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조 의원을 찬성 토론의 단상에 올려 세운 것은 더 이상 농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正直(정직)의 힘이었을 것이다. "난들 왜 겁나지 않겠느냐"는 그의 목소리가 절절하고 "오늘 내 결정이 결국은 농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한 그의 정성이 뜨겁다. 조일현 의원은 우리 농업사에 농민을 속이기를 거부했던 정직한 농민의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고 우리 國史(국사)엔 정치인의 용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진정한 국회의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일현의 각오와 다짐

화전민의 아들 "조일현"은 맨발과 맨손으로 표발을 일구어 온 일꾼입니다.

-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거미줄을 타고 옥상을 오르는" 노력과 정성으로 한길 만을 달려온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정치인입니다.
-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쉬지않고 공부하여 두개의 정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을 가진, 준비되고 검증된 국회의원입니다.
- 상지대학교, 경희대학교, 중국 북경대학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한 인정받는 "중국통 현실 정치인"입니다.
-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치판에서 수십년 활동했지만, 전과하나 없는 보기 드문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 할말하고 할일하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약속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꿈을 함께 이룹시다!

조일현이 드리는 부탁의 말씀

사랑하는 **홍천**의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조일현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조일현의 삶이 있었고, 오늘이 있을 수 있었음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조일현에게 그 은혜를 갚을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홍천이 하나되어 지역발전 앞당기자!!

존경하는 **횡성**의 유권자와 동지 여러분!

횡성은 조일현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30여년을 동거동락하던 조일현이가 4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참 활동할 때는 “횡성의 개들도 조일현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지, 짓지는 않는다.”고
우스개 말씀을 해 주셨던 그 조일현을 반갑게 품어 주십시오.
못다 이룬 꿈을 횡성에서 함께 펼치고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횡성군민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자랑스런 **영월·평창**군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기호 8번 조일현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솔직한 조일현입니다.
운전은 잘하는데 영월·평창의 길을 모르는 운전기사의 심정입니다.
“영월·평창의 길도, 사정도, 사람도 잘 모릅니다. 단지 올림픽을 자랑스럽게 잘 치르셨지만
농촌 현실과 지역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역을 통째로 확 바꾸겠습니다.

우리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은 범죄가 넘쳐나는 우범지역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농촌 지역입니다.
치안과 법조계 인사보다는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조일현이 더욱 적합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 건설교통위원장 출신
농업·농촌 정책전문가 “조일현”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일현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 참에, 국민여러분의 뜻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겠습니다.

* 풍부한 경험과 인맥 *



▲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승리와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 인정받는 중국통 정치인 *



▲ 형해명 현재 중국대사와 함께

두개의 박사학위!

- 노천초등학교 졸업 (전교 학생회장)
- 동화중학교 졸업 (전교 학생회장)
- 춘천제1고등학교 졸업 (전교 학생회장)
- 상지대학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 중국북경대학 대학원 졸업 (법학 박사)

두번의 국회의원!

- 제14대 총선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 쌀 협상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국회지원단 대표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
- 국회 한·중 의원협의회 부회장
- 국회 한·이집트 친선협회 회장
- 국회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연구회 대표 의원
- 제22대 대한 핸드볼협회 회장
-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
-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 상지대학교 초빙교수
- 중국북경대학 파견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중국경영학과 객원교수
- 강원사대부고 총동문회장
- 현) 통합상지대학교 총동문회 초대회장
- 저서 : <미래 한국의 권력구조>, <도사리의 꿈>, <특별한 점심>
<광화문아고라-베스트셀러>, <개구리와 두꺼비>

가정을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입니다.
선거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가족사진을 새로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정치인의 삶 속에서도 안으로는 가정용,
밖으로는 남편을 강하고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쁜 딸 조은경은 아빠를 닮아 하고 싶은 일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직장을 다녔고,
지금은 농식품 가공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멋진 제 아들 조영웅은 엄마를 닮아 우직한 녀석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와 한 약속을 지키려 해병대를 다녀왔고,
현재 중국북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히 가족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왔고 살아가겠습니다.



무소속 **8** 농촌을 살릴 사람! 지역을 빛낼 일꾼!
조일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흥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선거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68 2층 조일현 후보자 사무실
Tel. 033-343-1987 Mobile. 010-2857-1987
후원회계좌 : 농협 301-0264-9288-41(예금주 김정아)